조 왈렌찌나 여사

20 조 왈렌찌나 여사는 1917년 4월 10일에 원동 변강 연해주 니꼴스코-우쑤리시에서 탄생하시였다. 고향도시에서 사범전문학교를 1937년에 졸하신 이후 한인강제이주 카자흐공화국 크즐올다시에서 1942년에 국영 사범 전문대학 로어 어문학부를 필하시고 그해부터 1947년도까지 크즐올다시 고등에서 어문학 교원일을 하시였다.

조 왈렌찌나 여사는 1947년에 1년간 특별교원강습을 필하신 다음 조선민주공화국 평양에 파견되였다.

1950년에 동족상잔이 시작되자 전쟁초시기에 유엔군의 평양에 대한 폭격에 의 다리를 부상 당하고 후방가족들과 함께 중국 할빈시에 후송되여 전쟁 3년간 거기에서 치료도 받고 중학교들에서 로어 어문학 교원 일을 하시였다.

조 왈렌찌나 여사는 1953년에 정전되자 다시 평양에 돌아와 고등 로어 어문학 교원일을 하시였다.

조 왈렌찌나 여사는 1960년에 쏘련으로 귀환하여 카자흐 공화국 알마아따시 불루자 고등에서 어문학 교원으로 1972년까지 일하시고, 1972년에 사회보장 년금생활에 넘어가시였다.

2000년 2월 11일. 따슈켄트에서.